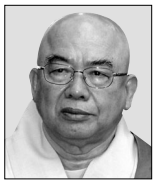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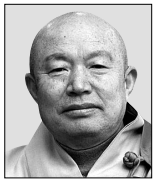
일 주 문



안양교도소 독경대회 개최 서울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은 11월 5일 안양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독경대회를 개최했다.



화엄산림대법회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12월 3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 '화엄의 세계'를 거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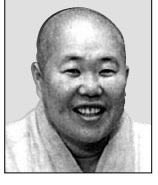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점안식 순천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은 11월 20일 소조사천왕상 점안식을 거행한다.



법화경 일요경전법회 공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11월 17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마곡사 심검당에서 법화경을 주제로 일요경전법회를 연다.



조계사 사천왕 점안식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11월 26일 조계사 일주문에서 사천왕 점안식을 개최한다.



천강월 전시 개최 대구 보현암 주지 선진 스님은 제9회 개인전 '천강월'을 10월 29일~11월 3일 대구 수성아트피아 멀티아트홀에서 가졌다.



'계율의 현대화' 심포지엄 김중규 교단자정센터장은 11월 28일 오후 2시 만해NGO교육센터에서 '불교의 현대화' 제2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진각종 금강합창단 '심인의 소리'



진각종 대구 금강합창단은 11월 2일 대구 아아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진기 67년 금강합창단 정기연주회 '심인의 소리' 발표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회장 통리위원장, 정효 대구교구회장, 금강합창단 지도스승 관평 정사 등 500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회는 범종소리에 이어 죽비 2성으로 시작되어 '내 마음의 부처' '법고소리' '사랑하는 이여' '향수' 등을 선보이며 깊어가는 가을밤을 적셨다. 특히 대구예술대 실용음악과 이상직 교수의 색소폰연주는 좌중의 호응에 흥겨움을 더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이도다완, 수행승 찻사발일 가능성 높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센겐시쓰 대중장 대담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이 11월 6일 서울 신라호텔 미팅룸에서 일본 다도계의 큰 어른이자 일본의 대표적 다도가문인 우라센케(裏千家)의 센겐시쓰(千玄室·90) 대중장(大宗匠)과 대담을 가졌다. 이는 세계일보가 마련한 행사로 이도다완(伊豆多丸)이 일본의 대중장을 통해 세계 최고의 다완임을 인정받는 자리였다.

이번에 공개된 이도다완은 16세기(조선 초)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전세품으로 모양과 비파색 등에서 이도다완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박동춘 소장은 "이 다완은 어떠한 손상도 입지 않고, 한번도 쓰이지 않은 채로 전해져 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도다완이 만들어질 당시의 아름다운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다도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 정읍 지역에서 전해 내려온 것으로 알려진 이도다완은 국내의 한 도자기 마니아 소장해 왔는데 4년의 감정 과정을 거쳐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지름 14cm, 높이 8cm, 무게 265g으로, 이도다완의 특징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이 이도다완은 일본



조선초 제작 이도다완으로 추정. '이도다완'보다 완벽한 평가 내면적 온기 생생히 전해지는 걸작



센겐시쓰 대중장이 인정한 '이도다완'.

의 국보로 지정된 '기자에문(喜左衛門)'을 능가하는 미감을 지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박 소장은 "어린아이 피부 같은 촉감에서 내면적 온기와 깊이, 포용성, 도공의 심성, 예술미의 천연성이 생생히 전해지는 것 같은 걸작이다. 역사 이래로 우리의 미적 심미안이 어디에 닿았을 지를 깊이 느끼게 해주는 다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소장은 "미술품 감정 1호인 이동천 박사를 통해 진품이라는 평가가 낮으며 기자에문 보다 완벽한 예술적 가치가 높다는 것도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감정은 다완을 많이 사용해 안목이 높은 대중장을 통해 최종 확인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이도다완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막사 발로 알려졌던 이도다완이 '찾그릇'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박 소장은 "그릇이 가진 위엄이 대단하다. 이는 다완의 주인이 불교의 스님, 도가류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초의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차문화 연구해오던 박동춘 소장은 이를 계기로 고려에서 조선 초기의 차문화를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장엄한 불교의식에 현지인들 큰 관심 보여"

인도 마하보리사원 초청 영산재 시연한 봉원사 일운 스님

"우리 한국불교문화의 정수인 영산재에 대한 관심이 인도와 네팔 현지에서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부처님 성지에서 공연하는 우리들을 보며 현지서 만난 관광객과 현지 불교 관계자들은 연실 카메라 플래시를 터트리며 '원더풀'을 연발했습니다. 우리 영산재가 세계인들에게 한발짝 성큼 다가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9박 10일간 부처님 7대 성지를 순례하며 돌아온 일운 스님은 그간의 감회를 이렇게 밝혔다.

첫 공연은 부처님 탄생 성지인 네팔 룸비니에서 시작했다. 1시간 30분 동안 안산 천수사 육법공양팀의 공양 의식에 이어 바라춤과 나비춤, 요삼 등 영산재 의식의 핵심 작법을 선보였다.

이후 열반당인 있는 쿠시나가르 열반사에서 가사공양과 함께 공연을 했고, 마하보리대탑과 녹야원, 영축산 등에서도 작법무를 선사했다.

"이번 공연팀에는 안산불자들의 음성공



네팔가야에서 열린 영산재 시연회와 영산재보존회 회장 일운 스님(봉원사 주지, 원안)

양 모임인 사리자합창단과 영산재 보존회 스님, 육법공양팀 등 총 5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서 할 때만큼 모든 것이 갖춰진 공연은 아니었지만, 한국의 영산 작법 및 법패 의식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통 영산재 공연에는 과불이 등장했지만, 모두 공연 장소가 부처님 성지여서 별도로 필요가 없었던 것도 특징이었다. 특히 영축산에서는 백백한 일정 때문에 여독한 새벽에 올라가 공연을 하기도 했다.

"저희 보존회를 초청한 마하보리사원 관

계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한국 영산재를 직접 접해 보니 작법의 장엄함에 저절로 범열감을 느꼈으며, 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영산재가 선정됐는지 이제야 이해가 간다고 제 손을 잡고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일운 스님은 앞으로 우리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1년에 1~2회씩 해외 공연을 계속할 예정이다. 내년 3월에는 중국 허북성 옥천사에서 공연을 갖는다.

김주일 기자 kimj17@hyunbul.com

불교평론 학술상 신규탁 교수 선정

<규봉종말과 법성교학>으로, 시상식은 12월 19일

<불교평론>이 불교학 진흥을 위해 매년 수여하는 '2013년 불교평론 학술상' 수상자로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불교평론> '올해의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심사평에서 "신규탁 교수는 <규봉종말과 법성교학>을 통해 중국불교사에서 '법성'이라는 개념을 발굴해 재해석하고 그 적용까지 원리를 확장했다"며

"법성의 관점에서 중국 화엄사상·선불교·정토사상을 비판적으로 새롭게 구성한 점을 높이 샀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이어 "법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 철학적 논의를 더욱 탐구하고, 불교학은 물론 철학의 다양한 문제를 해석하고 확장해가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의 연구비가 수여되며 시상식은 12월 19일이다.



노덕현 기자

통합선교종 제1회 호국불교통일법회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총무원장 삼주)이 주최하고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의장 법해)가 주관하는 '제1회 전국호국불교통일기원대법회'가 11월 1일 세종시 세종시민체육관에서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통합선교종 총무원장 삼주 스님, 명예이 사장 화엄 스님, 부원장 상원 스님,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회장 법해 스님, 세종시삼연합회 회장 수환 스님,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 이덕형 통일부 통일정책 협력관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108산사순례기도회, 7주년 기념법회



2006년부터 한국 신령문화에 새장을 연 108산사순례기도회(회주 혜자)가 11월 5일 도선사에서 7주년을 맞는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청담문도회 문장 혜성 스님과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을 비롯해 이재오 국회의원과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 등 사부대중 40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혜자 스님은 "도선사에서 순례의 첫 발을 디딘 후 7년간 85차례 순례를 마쳤다. 지나는 날을 되돌아보니 참으로 꿈만 같다"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보살행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주일 기자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제촌 3천 4십 1번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조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